

# 아침햇살:



## 아침햇살 온라인 전환 안내

새롭게 변화할 아침햇살 기대해주세요! P. 02

로사장칼럼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P. 03

아침햇살19년의 발자취

아침햇살은 나의 보물입니다. P. 04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KASEC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P. 06

KASEC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P. 08

## 가족여행 프로젝트 “I'm Here”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들과 떠나는 여행! P.10

## 제 3회 KASEC 골프대회

자폐인식의 달 기념 P.12

센터 소식 P. 14

센터 안내 P. 15

후원해 주신 분들과 단체 P. 16

# 2019년 가을부터 새롭게 변화할 아침햇살을 기대해주세요!



종이에서 온라인으로 형태는 바뀌지만, 아침햇살의 ‘스피릿’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더욱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넘치는 희망을 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한미특수교육센터의 개소와 함께 시작된 교육전문잡지 “아침햇살”이 이번 145호를 마지막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종이에 인쇄되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쉽고 편하게 아침햇살을 만나실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아침햇살 디지털판을 이메일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info@kasec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센터 웹사이트 [www.kasecca.org](http://www.kasecca.org) 나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sec5629262040](https://www.facebook.com/kasec5629262040)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Rosa Chang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한국은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LA는 아직도 무더운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센터의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모두 시작되었고, 우리 스텝들은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센터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6월, 한인 사회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돋고자 장애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하여 최초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한인 장애전문 정보센터인 한미특수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로부터 19년간 발행해온 아침햇살 지면에 마지막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쇄된 잡지로 만들어져 우편으로 발송되었던 아침햇살이 다음 호부터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최신의 장애와 치료 정보를 보다 많은 분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으로 변신을하게 됩니다.

저는 창간호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아침햇살에 교육마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었고, 이후 4년 반째 소장으로서 칼럼을 써왔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기에 매번 칼럼을 쓰는게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칼럼을 잘 읽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던 분들, 심지어 잘 쓴다는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이 인사치레인지 알면서도 힘이 나서 오랜 세월 부족하지만 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창간호부터 월간지로 혹은 격월로 발행되다가, 2015년부터는 계간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아침햇살은 총 14명의 편집인을 거치며 교육전문 잡지로서 알찬 내용을 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장애자녀 양육의 경험을 담은 희망나누기 코너, 센터 선생님들의 인내와 사랑이 담긴 교사일지 코너, 교수님들과 전문가 선생님들이 장애학생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를 적어주신 정보마당과 교육마당,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법 및 특수교육법률 등 장애학생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까지 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장애전문 교육잡지이며 우리 모두에겐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침햇살은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 센터의 명함처럼 사용되기도 했고, 센터가 하는 일을 알리는 증명서처럼 가는 곳 어디든 들고 가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아침햇살을 통로로 부모님들과 교육기관, 교회 등에 장애와 치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을 뿐 아니라, 한인사회에 자폐증을 비롯한 올바른 장애 정보를 알림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후원과 봉사에 나서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센터를 시작하고 아침햇살을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이자 역할을 그동안 우리 센터와 아침햇살이 잘 감당하고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이지만 또 한편 새로운 시작인 이번 칼럼을 쓰다보니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옛것을 알고 새것을 배운다는 온고지신과 비슷한 말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즉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지켜온 아침햇살이 온라인 판으로 단순히 정보전달의 수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더 빨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센터의 미션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더 좋은 치료와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자녀와 그 부모님들께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 단장하는 온라인 아침햇살 기대해주시고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9년간 총 145호의 아침햇살이 발간되어 많은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글들을 기고해주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전문가들, 예쁘게 디자인 해주셨던 이정진씨, Paul Han 전도사님, Alison Oh 씨, Alice Kwon씨,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Kevin Bae 선생님, 초창기에 영어로 된 정보를 번역해주셨던 연세대학교 안강현 교수님과 부인이신 최임희씨, 우리에겐 큰 부담이었던 아침햇살의 제작비와 우편비를 후원해 주신 분들, 인쇄된 아침햇살의 메일링 작업을 도와주셨던 수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무거운 우편물 자루들을 지고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번거롭고 힘든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준 스텝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예요!

# 아침햇살 19년의 발자취

“아침햇살은 나의 보물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월간 또는 계간으로 꾸준히 발간되며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목소리를 담아왔던 아침햇살. 지면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된 시점에서 지난 발자취를 간략히 돌아보았습니다. 양한나 이사장님과 로사 장 소장님을 함께 인터뷰하며 나누었던 아침햇살 19년의 스토리입니다.

(두 분의 답변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 1. 2000년도에 처음 센터를 오픈하며 동시에 아침햇살 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고 바빴을텐데 어떻게 잡지 발간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센터(당시에는 ‘한미 장애인 및 노인복지 연구소’)를 시작했는데, 한인커뮤니티에 이를 어떻게 잘 알리고 전달할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잡지 발행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밀알선교단에서 발행하던 밀알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소식지와 정보지의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아침햇살” 창간호를 센터 오픈과 함께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2. 그 동안 아침햇살이 해온 역할에 대해 총평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 아침햇살이 없었다면 센터를 알릴 수 없었을 거예요. 미국에 사는 한인 장애인과 가정들은 정보도 없이 막막하고 서비스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었으며 언어장벽도 있었기에, 이분들께는 한국어 정보가 절실했습니다. 그 때는 컴퓨터

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 않았으니, 도움이 필요 한 분들이 아침햇살을 들고 센터를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19년째 제 가방 속에는 늘 아침햇살이 들어있어서,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한권씩 드리며 센터를 홍보하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센터의 얼굴이고 제 명함 같은 존재입니다. 발행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도, 여건이 힘들고 사무실을 쫓기다시피 옮겨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왔습니다. 이 한권의 잡지 덕분에 선생님들도 모이고, 건물도 얻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타주나 한국에서 찾아와 인연을 맺게되는 분들이 생겨났고, UCLA 측에서 우리 센터와 컨퍼런스를 하자는 연락이 와서 함께 세미나를 열기도 했으니 이 얇은 책자가 해낸 역할이 실로 대단한 거죠.

## 3.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침햇살의 내용도 많이 변화되어 왔을텐데요.

- 처음에는 장애인센터라고 하니 장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만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잘 안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전문잡지로 이름을 변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정보를 얻도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초기에 실린 내용들을 지금 보면 근 20년 전의 정보이다 보니 현재와는 다른 기준이나 명칭, 치료교육기법들이 담겨져 있어서 긴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센터의 명칭만 해도 몇 차례 바뀐 끝에 “한미특수교육센터”가 되었죠. 그러면서 점차 발달장애에 포커스하는 쪽으로 바뀌어왔어요. 아침햇살 140여 권을 들여다보면 정보나 소식 뿐 아니라 에세이, 시, 칼럼, 일기, 경험담, 만화 등 갖가지 문학장르가 다 동원되었다는 게 보일 겁니다. 통합교육, 부모 역할, 법률 등을 주제로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경우는 세미나 내용을 한 호에 특집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이나 책의 사이즈, 페이지구성 등도 수차례 변화했어요.

#### **4. 지금까지 아침햇살이 이어져 오기까지 함께 수고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아침햇살은 단지 교육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센터의 수많은 선생님과 관계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동생과 남편까지 나서서 거들어 주기도 했고요, 창간호

시작부터 몇 년간 출간을 맡아 주시던 밀알의 배근연 총무님, 글도 써주시고 후원이사로 활동해주신 장미나 변호사님, 박수정 선생님, 오윤정 선생님, 센터의 부모님들 등 아침햇살을 통해 평생 기억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어린 글을 써주신 모든 분들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 **5. 종이에 인쇄되는 아침햇살이 이번 호로 종간되면서, 온라인 형태로 새로운 아침햇살이 시작됩니다. 소감과 바람을 말씀해 주세요.**

-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정보가 깨알같이 담긴 아침햇살들은 지금도 우리 집 서재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으로 볼 수 없으니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그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될 수 있으리라 기대도 됩니다. 센터가 하는 일들이 더 멀리까지 알려지고,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KASEC 가족 여러분,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KASEC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줄 수 있을까?”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오랜 시간 늘 불들고 있는 화두입니다. 모든 사람의 개성과 능력이 다르듯이, 발달장애인들도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악기연주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앙상블 프로그램을, 타고난 댄스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댄스프로그램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서툴게 첫발을 디뎠던 프로그램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이제 아이들은 시작 무렵엔 생각도 못 했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센터가 놓지 않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을 키우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솔루션은 ‘그룹 활동’ 그리고 ‘통합 환경’. 그래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연주합니다. Volunteer로 참여하는 비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학생들은 인사하고, 대화하고, 친구되기를 연습합니다. Volunteer 학생들은 발달장애라는 독특한 존재방식을 만나고 이해함으로써, 장차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나갈 동료로서 성장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꾸준한 성장과 즐거운 도전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면 좋을까? 센터 스탭들, 부모님들, 각 선생님들과 봉사자, 후원자님들이 한 마음으로 꿈꾸는 희망 - 모든 아이들이 각자 품고 있는 그 씨앗이 언젠가 꽂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KASEC 스페셜 프로그램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문의 : 562-926-2040, program@kasecca.org



## 스포츠 프로그램



**KASEC Knights 농구팀** - 재능있는 발달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파트너들이 함께 하는 팀을 이루어, 농구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합니다. (풀러튼, LA)



**통합 농구프로그램** - 전문 농구코치의 지도로 농구의 기초를 배우고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키웁니다. (풀러튼, 얼바인)

**특수체육(APE)** - 특수체육교사의 지도로 신체활동과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합니다. (풀러튼, 얼바인)

## 뮤직 프로그램

**하모니아 앙상블** - 장애/비장애를 뛰어넘어 음악안에서 하나된 뮤지션들이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앙상블입니다.

**Music Fun Group** - 클래식 악기 연주 실력과 상관없이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오픈되며, 다양한 음악활동 속에서 사회성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댄스 프로그램

흥 넘치고 끼 많은 댄서들의 춤 솜씨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KASEC Dancing Stars! 그룹 댄스활동을 함께 즐기기 원하는 발달장애인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Music Circle “I'm Growing”

유아의 전 영역의 발달을 돋기 위해 교육적, 치료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된 소그룹 음악놀이 클래스입니다. 또래들과 노래하고, 연주하고, 몸을 움직이며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은 물론 음악적 감수성도 쑥쑥 자랍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LA센터에서 만나요. (대상 24-48개월)



## KASEC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기고, 걷고, 장난감을 쥐고, 말귀를 알아듣고, 한 두마디씩 말이 트이고, 또래와 놀고, 감정 조절도 하고..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체중과 키만 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잘 발달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연령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 걸까?  
조금 늦되는데 그냥 기다려야 할까?  
혹시 발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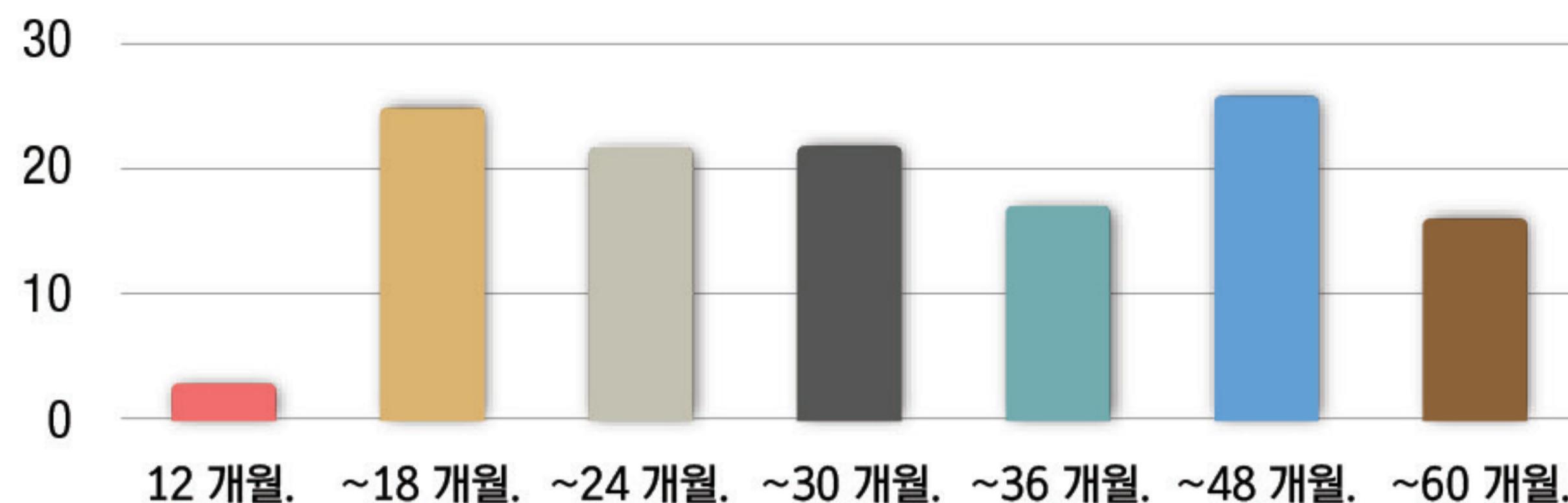
혹시 모를 아이의 발달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조기발견 조기중재(Early Detection, Early Intervention)”입니다. 발달 이상의 징후를 일찍 알아채고 빨리 도와줄수록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성장과 두뇌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적절한 치료 교육이 제공되면 이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12년부터 Orange County와 LA County 지역에서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영유아를 위한 미국의 발달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그 동안 센터가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아, 2018년부터는 캘리포니아 발달서비스국(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후원을 받게 됨으로써 더 많은 지역과 가정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그 동안 총 1030명의 영유아가 발달검사를 받았으며, 2019년 상반기에도 두 번의 발달검사(LA와 La Mirada)에 130여명의 영유아들이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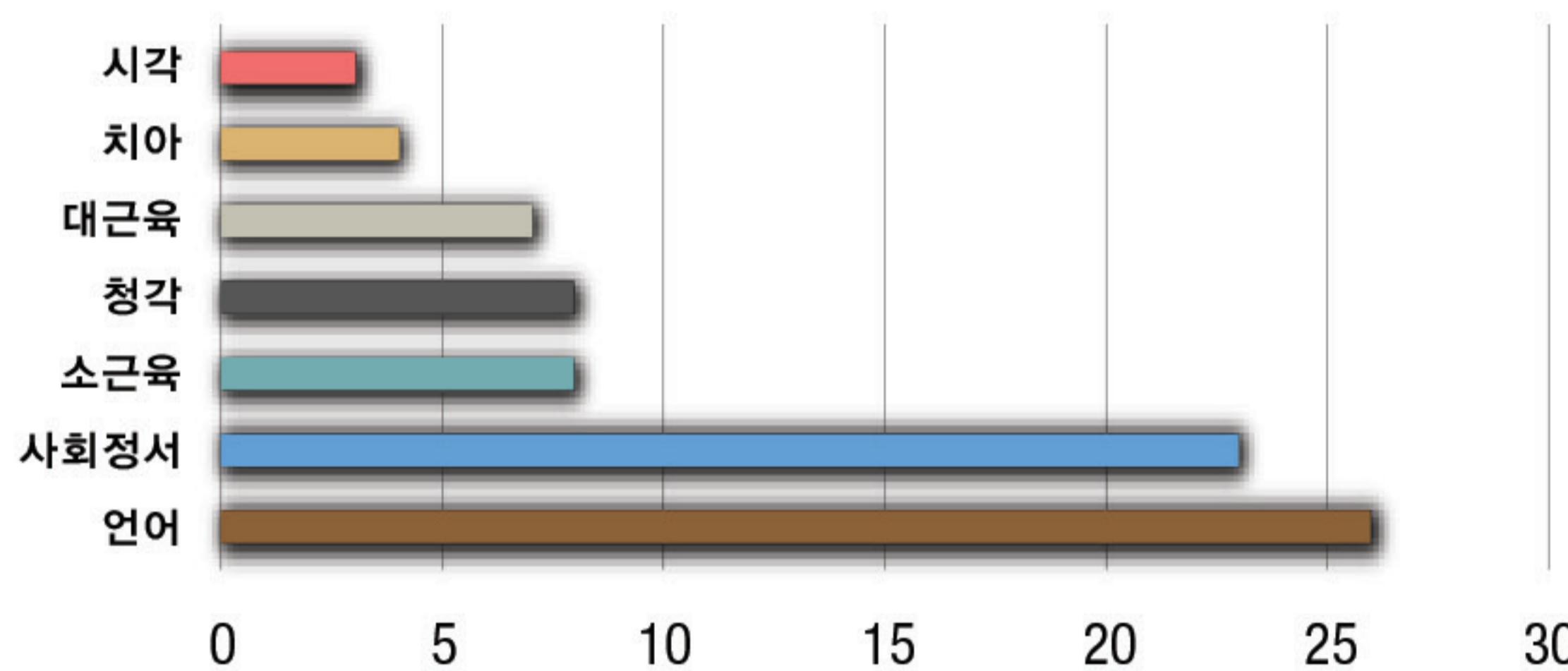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특징중 하나는 참여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차 더 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약 40%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였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발달을 체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 연령별 참가 인원(월령)



발달지연이 특히 많이 발견된 영역은 언어발달(20%)과 사회정서발달(18%)로 5명 중 한 명꼴로 재검사 또는 전문가의 진단을 권유 받았습니다. 대체로 자폐성 장애아의 부모님이 자녀의 발달 이상을 처음 느끼는 이유가 언어지연이나 눈맞춤 부족인 것을 고려하면, 언어와 사회정서발달은 선별 검사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검사 또는 진단이 필요한 발달영역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두뇌의 신경생물학적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생후 1년 안팎의 이른 시기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기,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들(눈맞춤, 손 흔들기, 머리 끄덕이기)이나 공동주의집중(Joint attention,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등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제스처) 같은 발달은 돌 무렵이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자폐 진단의 최적 시기가 생후 14-16개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2019, UCSD Autism Center 연구팀). 예전에 비하면 진단시기가 한층 빨라졌지만 여전히 5-6세가 되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를 찾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

를 놓치기 쉬운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한미특수교육센터는 계속해서 이 일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막연한 염려나 속단을 내리기보다는 발달검사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정확한 길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발달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 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발달검사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늦되는 것 같아 염려가 많았는데, 전문가들의 평가와 상담으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2019년 5월 발달검사 참가 부모님)



## KASEC 가족여행 프로젝트 “I'm Here”

###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들과 떠나는 여행!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발달장애인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여행의 즐거움과 여유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맘 편히 신나게 놀다오는 여행의 기쁨을 꼭 만끽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뭉치고 아이디어를 내고 도움의 손길과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덧 3년, 이제 가족여행은 매년 우리 센터 가족들에게 뜨거운 여름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를 맞는 올해의 목적지는 기차를 타고 가는 Hearst Castle. 18가정, 총 53명이 함께 한 여행길은 산타 바바라, 피스모 비치, Hearst Castle을 돌아보는 1박 2일의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걷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바다코끼리를 구경하고, 웅장한 건축물도 돌아보면서 내내 함께 웃고, 수다떨고, 밥 먹고, 사진 찍었습니다. 이만한 힐링이 더 있을까요?

이 즐거운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멀리 Atlanta에서 날아오신 피터와 어머님의 여행기를 소개합니다. 어머님의 글 속에서 1박 2일의 시간이 눈 앞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가족여행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오픈뱅크, 왕글로벌넷, 희망투어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Choo Choo~ Choo Choo~~ All Aboard!!!”

Tomas Engine에 빠져 매일 기차 바퀴만 그리며, 눈에 띠는 기차장난감은 모두 사서 모아야 울음을 그쳤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기차를 태워주고 싶었던 간절함으로 기차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높은 경비에 포기하고 피터의 꿈을 이루어 주지 못 했습니다.

작년 이곳 애틀랜타에서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발달장애인 그림대회”에 참여하며 인연이 되어 센터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고, 매번 올라오는 부러운 포스팅들을 놓치지 않고 보다가 기차여행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아쉬움이 선명하게 올라오면서 피터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막상 떠날 채비를 하다 보니 동네 행사도 아니고 비행기표에 숙박비 등등 걸림돌이 속출하더라구요. 허 참, 취소도 못하고…

“Peter 복이다~” 생각하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기차시간 늦을까 하루 일찍 도착한 소박한 호텔에서, 피터와 같은 취미를 가진 22세 자폐성아들을 두셨다는 주인아저씨께서 피터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고, 피터가 원하는 Walt



Disney Concert Hall 이 가까우니 사진이라도 찍고 오라시며 직접 Lyft 를 불러주시어, 정말 사진만 찍고 온 기억이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맛난 아침을 챙겨 먹고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이미 무리를 이루고 계신 여행팀을 만나 우리도 북적북적 18가정 53명 ‘제 3회 가족여행’ 사진 속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타보는 기차여행, 저에게도 설렘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차 속 주인공이 되지 못함이 조금 아쉬웠지만, 달리는 기차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해변의 전경과 반대편 병풍처럼 펼쳐진 능선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감싸주었습니다. 잠시 발을 멈췄던 Santa Barbara 시내관광, Courthouse 위에서 맞는 산들바람과 건물 앞 넓게 펼쳐진 잔디 위에서 자유롭게 쉼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유로움과 평화를~ Pismo beach 의 거센 파도를 즐기며 윈드써핑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도전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San Simeon 에서 생전 처음 만나는 바다코끼리는 우렁찬 울림이며 윤기나는 커다란 차돌들이 모여 있는 듯한 형상이 신기했습니다. 물 속에서 소리치는 놈, 모래 위에서 잠자는 놈, 모래를 몸 위로 흘뿌리는 놈, 배를 바닥으로 둔 놈, 배를 하늘로 향한 놈…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하루를 만들어 가네요, 우리 아이들처럼.

저녁 시간 호텔에서는 엄마들의 산전수전공중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저에게는 이렇게 준비되어있고 말까지 통하는 스태프들이 계시는 KASEC의 존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센터와 동행하며 이미 하나가 되어 계신 엄마들의 용기백배, 정보의 다양성,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밸런스를 맞춰가며 함께 협력해 나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편안하고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여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협약등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KASEC 모습이 죄스러울만큼 부럽네요~ ^\_^ 눈덩이처럼 더 크게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곳까지 그 영향이 미쳐 저희에게도 똑같은 행운을 안겨주는 단체가 하루 빨리 세워지기를 빌어봅니다. 20년간의 우여곡절을 이겨내시고 KASEC을 존재케 하신 로사 장 소장님, 샘 윤 담장님, 바쁜 중에도 재능기부 나눔에 헌신하시는 Clinical Director 박현선 선생님(소아발달전문의), 케빈 마 선생님(LA 교육구 특수체육). 장수해야 할 센터를 위해 더 오래오래 장수해 주소서~~

다음 날 도착한 우리의 목적지 Hearst Castle. 상상초월 대저택.. 인간의 자만심일까 욕심일까? 사람마다 다른 느낌이겠지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인간의 쉼의 장소가 아닌 관광지로 남겨

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눈요기 잘하고 KASEC 사무실로 무사 귀환, 긴 여정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흘어지고 저희는 폐복을 통해서만 본 KASEC센터를 잠시 둘러본 후, 그때서야 얼굴도 뵙지 못한 채 그 동안 도움을 청하고 받으며 억수로 고생시켜 드린 샘 윤 팀장님과 만남의 인증샷을, 그것도 센터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는 벽을 배경으로 한 컷 남겼습니다. 샘 윤 팀장님, I'm Here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시어 피터의 꿈, 디즈니랜드를 관람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현선 선생님 부부는 집방향이라며 우리를 호텔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함께 여행하셨기에 피곤하셨을텐데 바로 집에 가서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Lyft를 부르려는 저를 만류하시며 귀한 시간 나누어 주시고, 여행 중에 아이들을 위한 멋진 백팩도 후원해 주시고, 저의 사적인 궁금증도 풀어주시며 따뜻한 동행을 해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날 디즈니랜드 행은 팅커벨을 만나 사진을 찍어야 하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해서 또 다시 캘리포니아 방문을 예고하게 되었지만, 꿈은 꾸는 자의 것이라 했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뤄짐을 알기에 오늘도 피터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며 매일 순간 순간의 난관을 넘겨봅니다.

이처럼 훌륭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며 큰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과 쉼을 안겨주시는 KASEC! 고맙습니다. 멋진 프로그램 덕분에 산넘어 물건너 사는 피터네 가족이 덕을 보았네요. 장애인 가정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열정과 사랑, 희생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이끄심, 욕심내어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어 민들레 훌씨에 붙여 우리 동네까지 날려보내 주소서!

KASEC에서 아름다운 여행공지가 뜰 때마다 이성은 휴가를 보내고, 감성에 취해 이번처럼 대형사고 좀 자주 쳤으면 좋겠습니다. ㅎ멀리서 날아간 이방인의 낯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브라이언 엄마 김경미언니를 비롯 모든 엄마들과 저희까지 혜택을 누리게 해주신 오픈뱅크, 왕글로벌넷, 희망투어, 파바월드에 저도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닷가 앞에서 Peter Ahn과 어머니(가운데)



# 제 3회 자폐인식의 달 기념 골프대회를 마치고

지난 4월 1일, ‘미국 자폐증 인식의 달’을 기념하여 센터의 발달장애 프로그램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한 KASEC Charity Golf Tournament (위원장: John Kim, 박기홍)가 SeaCliff Country Club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14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20명의 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땀을 흘리며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올해도 발달장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메이저리그 투수 박찬호 선수와 대한민국 테니스의 레전드 이형택 선수, 골프 유튜버로서 밀리언 뷰를 자랑하는 에이미 조 프로, 그 외에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등 여러 한인단체 및 기업의 대표들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도와주시기 위해 바쁜 가운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행사에 큰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년 이 행사를 위해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해주시는 ‘서울메디컬그룹(회장:차민영박사)’의 후원이 없다면 우리들만으로 이 행사를 치루기에는 턱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 동안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발달장애 정보” 홍보물을 매 훌마다 배치해 둠으로써, 단지 골프를 치고 후원을 할 뿐 아니라 이 골프대회의 의미가 무엇이며 앞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골프 후 저녁 만찬 시간에는 작년 골프대회 기금을 통해 시작되어 온 ‘KASEC Dancing Stars’의 공연이 열렬한 격려와 박수 속에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성장, 파트너로 함께 성숙해가는 비장애 학생들의 모습,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성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바라보며, 사고로 2살 때부터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지만 뮤지컬 배우의 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결국 미국 최고 권위의 토니상에서 2019년 뮤지컬 부문 여우조연상을 탔던 앤리스트로커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디서부터인가는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We have to start somewhere)”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든 사람이 다 운동선수가 되고 요리사가 되고 박사나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할 수 있는 일과 강점에 관심을 집중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한계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We have already started HERE.

- 1 **2월 6일 LA지역 무료 발달Q&A 시작** - 박현선 소아발달전문의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염려와 궁금증이 있는 부모님들을 상담해 드리는 Q&A가 LA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
- 2 **3월 9일 APIDC Conference(캘리포니아 아태계 장애인연합 컨퍼런스)** - 우리 센터에서 토론과 발표에 참여하였고, Harmonia Ensemble이 무대에 올라 멋진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 3 **3월 22일 학부모 세미나** -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달장애인자녀의 고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 4 **4월 1일 제3회 KASEC 자선골프대회(Fundraising Golf)** - 4월 미국 자폐인식의 달을 기념하고 센터의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한 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였습니다.
- 5 **4월 27일 사랑의 마당축제 참가** - 우리 센터 부스에서는 맛있는 스낵과 즐거운 게임을 준비하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6 **5월 11, 18일 영유아 무료발달선별검사** - DDS(캘리포니아 발달지원국)의 후원으로 12-60개월의 영유아들을 위한 7가지 영역의 발달선별검사를 제공했습니다.(장소 :동양선교교회, 라미라다 연합감리교회)
- 7 **5월 22일 농구선수 김주성 초청 일일 농구클리닉 및 사인회** - 대한민국 농구의 전설 김주성 선수를 우리 센터의 농구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농구클래스와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 8 **5월31일, 6월14일 장애자녀 부모님을 위한 마음건강 워크샵** - 엘에이 카운티 정신건강국(LACMHD)의 후원으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self care를 돋는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라미라다, 엘에이 코리아타운)
- 9 **7월 12, 13일 제1회 한국 오토증엑스포 참석** -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오토증엑스포에 우리 센터가 함께 하여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서울 양재동 AT센터)
- 10 **7월 22일 KASEC 장애가족 여행 “I'm here”** -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가족여행. 이번 여름에는 Hearst Castle 을 향해 1박2일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1 **8월 4일 KASEC Dancing Stars, S.O.W. 공연 참가** - 센터의 댄스프로그램을 담당하는 S.O.W. 스튜디오 팀의 뮤지컬공연에서 우리 댄스프로그램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장소- La Mirada Theatre of Performing Arts)
- 13 **9월 14일 영유아 무료발달선별검사** - LA 지역에서 올해 세번째 발달선별검사가 Shirakiku재단 후원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장소: 충현선교교회)
- 14 **10월 매주 토요일 발달장애 ABC 세미나** - 발달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세미나가 10월 한달간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 15 **12월 9일 KASEC Family Night** -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학생, 봉사자, 부모님, 선생님, 스탭 등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한해를 돌아보며 즐기는 연말파티, 기대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기업 및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교회,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을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숍과 심포지움 주최  
특수학교와 장애 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특수교육 관련 법률,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정보 안내  
매스컴을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 주최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매거진 “아침햇살” 발간

\*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후원해 주신 분들

### 개인 Individual

Adrian W Jung	David Lee	Hwa Cha	Jeekyoung Park	Kee Whan Ha	So Young Kim
Ashley Kim	Dr. Lilian Lee	Hyo Cheong Kim	Jeeyoung Han	Liang Tang	Soo Jung Lee Park
Bella Shim	Edward Choi	Hyo Jeong Kim	Ji Sun Kim	Mi Hwa Kim	Suk Jin Han
Bo Young Lee	Edward D. Lee	Hyun S. Park	Ji Won Oh	Moon Lim	Sung A Ra
Bongsill Chung	Eun Young Lee	Hyun Sook Yoon	Jin Sook Paek	Myung Hye Park	Sungheon Kang
Chang Jun	Ha Seoup Bang	InSook Chang	Johnna C. Cho	Myung Shin Kim	Susan Chung
Ching May Chang	Hae Sook Song	Isaac Lee & Julie Ok	Joon Bu Park	Myung Suk Park	Tae Hwa Cho
Choi Family	Hannah Sun Yang	Jack C. Kim	Judith Wooyun Kwon	Paul Sanghoon Kam	Tae Suk Chong
Chong Ku Yun	Hannah Yang	Jae J. Shin	Jung Hee Sul	Richard Ham	Teresa Cho
Christina B Kwon	Helen Lee	Jaemin Youk	Jung Sik Kim	Rose Lujan	Virginia Moon
Christine Sung	Hi Cho	Jason & Stella Gee	Kailey Choi	Scott Bae/Grace Bae	Youn Lowrenicia
Chun Ja Kim	Hong Nim Bae	Jay Kim	Karen Moon	Sherry Lin/Kee Jeng Bik	Young Hee Moon
Danny Wu Yang	Howard Han	Jea Ran Ryu	Katherine Woo	Shin Kyu Kim	

### 단체 Organization / Business

Adcreasians Inc	Dong-A America Corp.	Korean Investor & Traders Association	SeAH Steel America, Inc.
Advanced Medical Management	Dough City Corporation	Koreatown Plaza	Secular Franciscan Order
Amstar Advisors	Eastland Corp.	Law Office of Jennifer Chang	Seoul Medical Group., Inc.
Bank of America	Eunjoo Vivien Lee Insurance SVC General Account	Law Office OF Wooseok Seo	Seoul Soondae., Inc.
Bankcard Services	General Financial Group, Inc.	Law Offices of Jinna Kang, APC	Severance Dental Inc.
BC F&B Corp	Glopax Financial & Insurance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SHIN IMAGING LLC
Benevate Investment, LLC	Golden Duck Co., Inc.	Lotte International America Corp	Steven C. Kim & Associates
Benjamin Koo & Co., CPAS	Good Hill.,INC	Mijoo Seoboo Church	Sunnyside Cremation & Funeral
Bixby village Golf Course	GST Solution Inc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Sunwest Foods, Inc.
Cerritos Medical Center	Han & Park Law Group	Network for good	Super 1 Hannam, Inc.
Chan Ho Park Enterprises, Inc.	Hanmi Bank	New York Life	TDC International Express
Chicago Title	Hanwah Q Cell America, Inc.	NLMC	Thanksgiving Korean School
Chun-Ha Insurance Services, Inc.	ICCS USA Corporation	Nongshim Holdings USA, INC.	The Choice Produce, Inc.
CJ Foods, Inc.	ILJIN Gratec USA Inc.	Omni Collision Center, Inc.	Transtar Transportation Inc.
Clayton & Casey Corporation	Jinro America, Inc.	Paris Baguette	UAK Builders, Inc.
Coalition of Inclusive Medicine	JODIFL, Inc.	PAVA World	WaBa Grill Franchise Corp.
Cortica Healthcare, Inc	Joseph S Ro CPA Inc.	Premier Tax Solutions	Wang Globalnet
DAESANG AMERICA, INC.	K&S Health Group, Inc.	PUB Construction, Inc.	Yonsei Global CEO Association
Daisy Global Trading Co	KART(Korean American Running Team)	Ryder	Yonsei Univ. Womens Alumni Ass of SC
DIMAX Express Inc.	Kim & Lee LLP	Ryu Law Firm	Yonsei Univ. Alumni Association of Southern CA
DK EXPRESS INC.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Southern CA		
Dong Jin America. Inc.			

### 재단 Foundation

Frontier Charity Foundation	Open Stewardship Foundation
Chanal Foundation	Shema Foundation
Kang Dream Foundation	Shirakiku Foundation
Koh Charitable Foundation	Sunrise Foundation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	The D.K. Kim Foundation
L&V Foundation	Turbo Charitable Foundation
Minsley Foundation	Y.S shin Foundation

정부 지원  
Grant

Cal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  
DDS CA Stat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02

#### 우편을 통한 후원

아래의 센터 주소로  
Check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Payable to KASEC**  
13353 Alondra Blvd, Suite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03

#### Amazon 쇼핑을 통한 후원

Amazon을 통하여 쇼핑하실 때  
Smile.amazon.com을 통해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시면 총 구매금액의 일부가  
우리 센터로 기부가 됩니다.

04

#### 은행을 통한 후원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센터 은행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Bank Name: Open Bank  
ABA Number: 122043958  
Account Number: 04200218

#### 온라인을 통한 후원

[www.kasecca.org](http://www.kasecca.org)에 가셔서  
원하시는 금액을  
Credit Card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계정을 통해  
안전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Since 1992

##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STEVEN C. KIM

ATTORNEY AT LAW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ckim@sbcglobal.net

Solution for Tomorrow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david@laservisionworld.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 323.730.5050 F 323.731.1313 C 323.383.3723

Kyu Bum Han



Lic. # 0B55520

### GLOPAX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Insurance & Financial Planning

7740 Painter Ave., Suite 206 Whittier, CA 90602  
Phone : (562) 945-2670 Fax : (562) 945-2680  
info@iglopax.com

PARIS BAGUETTE

Cerritos  
Branch

17416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  
Tel. 562.404.0440

Christina Kwon

REALTOR



BEST REALTY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Direct: (714) 504-6767

Office: (714) 451-1700  
Fax: (714) 451-1720

RealtorKwon@gmail.com  
www.Christinakwon.com



DRE Lic.#01822938

TITUS MANAGEMENT, LLC.

KAREN MOON  
HR CONSULTING

KMOON@NDEX.NET

949-230-3093

KIM | LE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lbert J. Jang  
CPA

전화 : 213 387 6000  
이메일 : ajj@kimleecpas.com  
2305 W. 190th St., Torrance CA 90504

UAK UAK BUILDERS INC.

대표 조성대

3660 Wilshire Blvd. #412, Los Angeles, CA 90010

royc@uakdev.com

Tel: 714 504 7614 | Fax: 213 279 2690

# 세리토스 메디칼 센터

## 진료 과목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병)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직장사고, 교통사고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각종 피검사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저 치료
- 골다공증



각종보험 / 메디케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김신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드 전문의

**562.402.7622**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3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LTL (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53ft Trailer & 26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 (310) 534-0113

Mobile : (310) 800-8510

Fax : (310) 534-0116 Email : TranStar.inc@gmail.com

24328 S.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90710

##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The Original Korean Brand **Taste of Korea**



**WANG GLOBALNET**

[www.wangfood.com](http://www.wangfood.com)

Edward Choi  
Financial Advisor

Morgan Stanley

NMLS #562282  
[edward.choi@morganstanley.com](mailto:edward.choi@morganstanley.com)

Wealth Management  
9665 Wilshire Blvd.

Suite 600  
Beverly Hills, CA 90212

direct 310 385 4817  
fax 323 638 2901  
toll free 800 669 4866

그래! 역시! 모든 보험은

**천하보험**

**800-943-4555**



**천하보험**

CHUN-HA INSURANCE SERVICES, INC.

A Subsidiary of CHUNHA Holding Corp.

## 한미특수교육센터 운영진 및 Staff

### Board Members

이사장: 양한나  
실행이사: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강승현 (Wang Globalnet 대표),  
Roy Cho (UAK Construction 대표)  
Karen Moon (HR Consulting, TITUS Managemen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Law office of Jennifer Chang)  
Edward Choi (Financial Advisor, Morgan Stanley)  
박기홍(천하보험 대표)  
Albert Jang (Kim&Lee CPA 대표)

###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승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박유진 변호사 (Han & Park Law Group, 유산 상속법)  
Francis Ryu 변호사 (Ryu Law Firm)  
Julie Lee 박사 (Cal State Fullerton, Health & Human Development)

###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 Clinical Director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 Therapists & Teachers

#### Special Educ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 Special Music Program/Harmonia Music Program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Unified Basketball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Steve Choi (Physical Education and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Sang Nam (Westcliff University Men's Basketball Asst. Coach, JMGP Basketball, Irvine Director/Coach)

### Community Outreach Manager

Sam Yoon

### Program Specialist

Nari Kim  
Rachel Ahn

